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사)한국포장협회 제273차 이사회 개최
(주)대상 제68기 정기 주총 개최
오리온그룹 'ESG 위원회' 설립
롯데알미늄 의약품냉장고 제조한다
SKC 정기주총 개최
(주)화승케미칼 그린바이오와 협약 맺어

업계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환경부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롯데푸드 친환경 포장 전환해 ESG 강화
휴비스 PET 발포소재 '에코펫', 배민상회 찜용기로 출시
한국제지 '그린실드', 농협 B2B물 친환경 컵으로 도입



(사)한국포장협회

제273차 이사회 개최

디엘에프엔씨(주) 재가입 승인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3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3차 이사회를 열었다.

(사) 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3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3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시행 보고, 회원 재가입 보고, 러소팩 및 유라시아 팩 참가계획 논의, 협회 창립 30주년사 제작 논의,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회원사 확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

(사)한국포장협회 제273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 |
|--|--|
| <p>1.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시행 보고
- 협회 계획(안)대로 시행</p> <p>2. 회원 재가입 보고
- 디엘에프엔씨(주) 회원 재가입 승인</p> <p>3. 러소팩, 유라시아팩 참가계획 논의
- 러소팩 참가 취소
- 유라시아팩 참가 진행</p> <p>4. 협회 창립 30주년사 제작 논의
- 위원회 구성 : 총괄 임경호 회장
 위원장-김창순 수석부회장
 부위원장-신정열 부회장</p> | <p>위원-각 분과 위원장, 지역장, 고문 등 추후 선임</p> <p>5. 이사회,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협회 행사, 세미나 등 적극 참여
- 정보교류 등 적극 추진</p> <p>6. 회원사 확대방안 논의
- 회원사 배가운동
- 협회 및 회원사 홍보 적극 추진</p> <p>7. 기타사항
-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사업 참여
- 기타 회원사 참여사업 추진</p> |
|--|--|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남경
1977년 4월 5일 창립 45주년

대성포장산업(주)
1985년 4월 20일 창립 37주년

동일알루미늄(주)
1989년 4월 25일 창립 33주년

디아이씨(주)
1987년 4월 20일 창립 35주년

[주]디엘피
2000년 4월 1일 창립 22주년

삼영화학공업(주)
1958년 4월 10일 창립 64주년

[주]신명이노텍
2006년 4월 16일 창립 16주년

[주]신영잉크
1996년 4월 1일 창립 26주년

[주]원지
1967년 4월 28일 창립 55주년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957년 4월 12일 창립 65주년

태일(주)
2015년 4월 15일 창립 7주년

플래어코리아(유)
2015년 4월 1일 창립 7주년

이 승인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사업 참여, 기타 회원사 참여사업 추진 등의 안건도 승인되었다.

또한 회원 재가입을 신청한 디엘에프엔씨(주)의 재가입을 승인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주)

제68기 정기 주총 개최

식품 · 소재 · 해외사업 역량 강화

대상(주)이 지난 3월 25일 열린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객 중심의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사업은 디지털, 퍼블리싱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역량을 재정 의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집중하며 채널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재사업은 건강과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바이오 기술이 제시하는 미래의 기준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대체식품소재를 사업화하고,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은 글로벌 핵심 제품군의 지속적인 고성장과 현지 메인스트림 중심의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 실행을 통해 사업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해외 제조기지의 조기 안정화와 동남아, 유럽, 중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역시 식품기업으로서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품질에



▲ 3월 25일 열린 대상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용주 대상 식품사업총괄 사장이 임정배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대신 전하고 있다.

대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ESG 역량 제고를 통해 재무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비재무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오리온그룹

‘ESG 위원회’ 설립

“윤리적인 글로벌 식품기업,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오리온그룹은 지주회사 오리온홀딩스와 사업회사 오리온의 이사회 산하에 각각 ‘ESG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관련 최고 심의기구로서 오리온그룹 윤리경영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주요 실적 및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실무 지원을 위한 ESG 전담 조직도 운영한다.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은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21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윤리경영과 연계한 ESG 활동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온그룹은 올해 ESG경영의 주요 활동으로 정보공개 강화 및 친환경 경영 고도화를 선정했다. 외부투자자 및 평가기관으로부터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홈페이지, 회사소개서 등을 통해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을 취득하는 한편,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리온그룹은 2015년부터 윤리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친환경 경영, 협력회사 동반성장 활동,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해 그린 TFT(Green Task Force Team)를 신설하고,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픈하며 국내외 생산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배출시설 현황 등 주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외 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 3자 검증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완료한 바 있다.

또한 매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공개 입찰 시스템인 ‘오리온 상생협력 포털’을 운영하는 등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통한 책임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이사회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독립성을 강화했으며, 이사회와 경영진 간 상호견제 및 균형을 갖추기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60%로 구성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의무비율을 상회한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ESG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 법인의 윤리경영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윤리적인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알미늄

의약품냉장고 제조한다

사업 영역 확대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의 알루미늄 등 소재전문기업 롯데알미늄(대표 조현철)이 의약품냉장고 제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헬스케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 지엠에스헬스케어(지엠에스)가 의약품냉장고 ‘VR-1’을 지난 2월 신고 완료했는데, 이 제품 제조사는 롯데알미늄이다. 의약품냉장고는 냉장 저장을 요구하는 의약품을 냉장 보관하는 기구다. 냉장 저장을 요구하는 의약품으로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이 있다.

‘VR-1’은 백신 보관에 최적화된 냉장고다. 온도센서에 이상이 생기면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 있으며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장착돼 있다. 또 와이파이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백신냉장고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외부에서 냉장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의료기기 신고를 마친 ‘VR-1’은 현재 의료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에 속속 입점하는 등 판매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알미늄은 기존에도 냉장고 생산은 해왔으나, 의약품용 냉장고 제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알미늄은 알루미늄박의 제조와 포장지의 인쇄를 주요사업으로 1966년 11월 설립됐다.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재, 음료를 담는 캔, 식품 랩 등을 생산하고 있다. 수술용품용 멸균백과 같은 의료용 포장재도 생산한다.

동사는 2009년 롯데기공을 흡수합병하면서 냉장고, 쇼케이스 등 냉기사업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신고 완료한 의약품냉장고는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담당이다. 기공사업본부는 보일러사업도 했었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기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철수했다.

한편 롯데알미늄의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8.8% 감소한 8,077억 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9% 감소한 73억 원을 기록했다.



▲ 롯데알미늄이 제조하는 지엠에스 헬스케어의 의료용냉장고 ‘VR-1’

SKC

정기주총 개최

박원철 신임대표 선임



▲ SKC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원철 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박원철 SKC 대표이사.

SKC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솔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KC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원철 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박 대표이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과 GS에너지, 하나자산운용 등을 거쳐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글로벌 성장과 사업 발굴을 맡아왔다. SK그룹의 베트남 마산그룹 및 빈그룹 투자, 일본의 친환경 소재기업 TBM 투자 등을 주도했다.

향후 SKC는 ESG 비즈니스 모델 기반 사업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SKC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SKC가 변화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를 제시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성장 한계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SKC를 SK그룹 대표 소재사이

자 시장에서 소재 분야 톱 픽(Top Pick)으로 평가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SKC 이사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박영석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신임 의장은 한국증권학회 회장 및 금융학회 회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김양택 SK(주) 첨단소재투자센터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 투자를 이끌고 있다.

(주)화승케미칼

그린바이오와 협약 맺어

친환경 생분해수지 제품 개발과 생산 및 판매

화승그룹의 정밀화학 대표기업 화승케미칼이 친환경 생분해수지 제품 개발과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그린바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3월 17일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생분해 컴파운딩 원료인 ‘G-Nature’를 통해 쇼핑봉투·멀칭필름 등 필름류와 컵·커트러



▲ 한상훈 그린바이오 대표와 류관형 화승케미칼 전무가 3월 17일 화승케미칼 아산공장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리·도시락 용기 등 용기류와 같은 생분해수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제휴에 따라 향후 화승케미칼에서 만드는 플라스틱과 필름류, 기타 산업소재는 그린바이오 기술로 대체된다.

나아가 양사는 화승케미칼 베트남 현지 공장을

활용, 필름류·신발류를 포함한 소비재와 전자제품·자동차에 쓰이는 산업소재도 함께 생산하는 등 해외 진출도 꾀하기로 했다.

그린바이오 측은 “기존 생분해 제품 대비 25~30%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플라스틱 제품 전체를 생분해수지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우석훈 화승케미칼 대표와 한상훈 그린바이오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환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제휴를 맺었다”며 “앞으로 개발, 생산되는 친환경 생분해수지 제품에 대해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재활용하기 쉬운 ‘단일재질’ 포장재 권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이끌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 등은 재활용 처리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 대해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



 <p>합성수지 몸체+금속테두리 복합구조</p>	 <p>페트 몸체+알루미늄 테두리 복합구조</p>	 <p>페트,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복합구조</p>	 <p>합성수지+알루미늄 50μm 초과 사용한 보냉백</p>
<p>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p>			<p>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p>

▲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 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

담금 할증이 발생한다.

그간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던 복합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 포장재 중 합성수지와 금속 등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또한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μ m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μ m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한다.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 μ m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하되 도포·접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중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

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는 모두 도포·칩합 표시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된다.

홍동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 재질로 전환하여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하여,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여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한편 타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그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운반·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어 위생·안전상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부터 닭 등 가금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가축에 대해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보건 및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개별 농가에서 폐기물처리 신고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로 가축 먹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토사,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의 분리배출 원칙에도 토사, 콘크리트 등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합된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소각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각효율을 개선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콘크리트 등을 최대한 분리하여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최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 의료폐기물의 소각 효율을 높였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탈회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이하 패키징연합회)가 3월 18일 연합회 사무국인 (사)한국포장협회 회상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의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의결 등과 함께 감사 보고가 있었다.

올해 패키징연합회는 ▲각 단체별 업종 현황 통계사업, 대 정부산업과 연계한 통계조사 등의 통계조사사업, ▲패키징 진흥법 추진, 패키징산업 육성사업 발굴 등의 패키징산업 육성사업, ▲패키징산업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패키징산업 위상제고사업 등을 통해 국내 패키징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에 대한 탈회 신청의 건이 승인되었다.

이한영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단체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최근



▲ (사)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18일 연합회 사무국인 (사)한국포장협회 회상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들어 오미크론 확산과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폭등으로 포장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라며 항상 건강 유념하시길 바란다. 또한 연합회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기계협회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14대 회장에 이시영 (주)영테크팩 대표이사 선임

(사)한국포장기계협회는 2월 28일(월) 서울시 금천구 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변형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회원들의 안전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행사가 아닌, 최소 인원 참석(임원, 수상자 등)과 정관에 의해 회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제27기(2021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과 제28기(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14대 회장 및 임원 선임이 있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 협회는 코리아팩 2022 전시 등 국내외 전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회원사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온라인 협회지 활성화와 회원사간 친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

반기부터 진행하여 회원사간 친목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협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제13대 김종철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14대 신임 회장으로 이시영 (주)영테크팩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시영 신임 회장은 (사)한국포장기계협회에서 이사와 부회장,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며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 (사)한국포장기계협회는 2월 28일(월) 서울시 금천구 협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시영 신임 회장(좌)과 김종철 13대 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취임식에서 임기를 마친 김종철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동안 협회를 운영해 나가며 많은 도움을 주신 임원분들과 회원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따뜻한 시선으로 협회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시영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무거운 자리임을 알고 있다”며 “임기 동안 협회 발전과 회원사간의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지난 2021년 무역의날에서 1천만불 이상 수출의 탑을 수상한 회원사에 대한 황금손 트로피 수여식이 있었다. (주)흥아기연(5천만불), (주)카운텍(2천만불), (주)리팩(2천만불), (주)한영닉스(2천만불), 농심엔지니어링(주)(2천만불) 등 총 5개 회원사가 수상하였다.

롯데푸드

친환경 포장 전환해 ESG 강화

플라스틱 뚜껑, 아이스팩 제거

롯데푸드가 친환경 포장 이유식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ESG 경영을 강화한다.

롯데푸드는 ‘파스퇴르 아이생각’ 배달이유식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송 포장재를 스티로폼에서 종이로 전환하는 ‘착한이유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월 24일 밝혔다. 배달이유식 가격도 인하한다. 친환경 포장으로 전환하며 절감한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취지다.



▲ 롯데푸드는 ‘파스퇴르 아이생각’ 배달이유식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배송 포장재를 스티로폼에서 종이로 전환하는 ‘착한이유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존 아이생각 배달이유식은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을 동봉해 배송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고객의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이에 롯데푸드는 환경보호를 위해 이유식 포장용기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필요한 아이스팩을 빼고, 스티로폼 재질의 아이

스박스 대신 친환경 종이 상자를 적용하며 실온배송으로 전환했다.

파스퇴르 아이생각 이유식은 고온 고압의 멸균공정을 거치는 무균이유식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배송해도 문제가 없다. 무균이유식의 유통기한은 실온에서 90일이다. 덕분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안심하고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

롯데푸드는 ESG경영 강화 취지에 맞게 플라스틱 절감 및 실온배송 전환으로 절감하는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한다. 아이생각 배달이유식 1식(90g 2개입)의 가격을 100원 인하했다. 인하된 가격은 이유식 단계별로 1식 당 4,200원에서 5,800원이다. 현재 배달이유식 정기배송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남은 수량에 따라 최대 8,000원 상당의 롯데푸드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제품 가격인하는 드문 사례다.

파스퇴르 아이생각 이유식은 HACCP 인증은 물론 까다로운 영유아용 이유식 제조기준을 준수해 만든다. 한 끼 180g을 90g 용기에 소분 포장하여 편리하고 안전하다. 아이가 필요한 만큼 맛있고 신선하게 먹일 수 있고, 번거로운 소분과정이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

휴비스

PET 발포소재 ‘에코펫’, 배민상회 찜용기로 출시

경량성 · 내열성 · 열차단성이 높아 장시간 보온 유지

휴비스(대표이사 신유동)가 PET 발포소재 ‘에코펫(ECOPET)’이 배민상회의 찜용기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에코펫은 폴리에스터를 발포시켜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된 시트 형태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인체에 무

해한 식품용기 소재이다. 우수한 내열성과 열 차단성으로 음식을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용기의 겉면은 뜨겁지 않아 취급이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배민상회는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준)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 식자재몰로 다양한 식재료 및 식품배달용기, 포장재 등을 판매하고 있다.

휴비스와 배민상회는 지난해 5월부터 에코펫이 적용된 배달용기를 공동 개발해 왔다. 그동안 배민상회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에코펫을 최적으로



▲ 휴비스 ‘에코펫’으로 만든 배민상회 찜용기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데 공을 들였다. 다른 포장재들과의 호환성 등 포장·배달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소재를 구현하였으며, 배달용기에서 요구되는 보온성과 음식물이 세지 않는 수준의 체결성을 고려한 테스트도 수차례 진행하였다.

이번에 출시하는 에코팻 용기는 찜닭이나 아구찜과 같은 찜요리 용기로 최적화되어 보온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무게를 건디는 내구성 및 체결력 또한 합격점을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기반한 재질별 규격 시험에 통과하였다.

배민상회 관계자는 “배달용기로 적용된 에코팻은 기존에 통용되는 소재 대비 단열 및 보온 기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더 따뜻하게 배달하고자 하는 배민의 노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휴비스 김봉섭 본부장은 “에코팻의 배민상회 입점은 배달용기로서 에코팻의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디자인 및 편의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인체 안전성, 친환경성에 가치를 둔 소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제지

‘그린실드’, 농협 B2B몰 친환경 컵으로 도입

재활용 ·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 한국제지의 착한 포장재 ‘그린실드(Green Shield)’가 농협 모든 계열사 직원들이 구매하는 B2B몰에 공급됐다.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는 착한 포장재 ‘그린실드(Green Shield)’가 농협 모든 계열사 직원이 구매하는 B2B몰에 공급됐다고 3월 22일 밝혔다.

이번 농협 B2B몰에 도입된 친환경 종이컵은 기존 플라스틱 계열의 폴리에틸렌(PE코팅) 대신 수성 코팅을 적용, 땅속에서 자연 분해돼 토양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유럽에서 각각 재활용, 생분해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를 취득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정받았다. 한국제지 담당자는 “지역 사회의 구심체로서 유통업계를 이끄는 농협과의 친환경 포장재 전환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6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농협 고객들의 친환경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제지는 이번 농협의 친환경 컵뿐만 아니라 식품 및 기타 산업 포장재 부문에서 그린실드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동원F&B

‘양반김 에코패키지’로 포장쓰레기 3분의 1 줄여

친환경까지 잘 챙기는 ‘김’



▲ 동원F&B는 양반김 에코패키지로 누적 55톤 이상의 플라스틱과 11톤의 종이 폐기물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동원F&B는 양반김 에코패키지로 누적 55톤 이상의 플라스틱과 11톤의 종이 폐기물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3월 25일 밝혔다.

양반김 에코패키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한 친환경 제품으로, 플라스틱은 물론 제품의 포장 부피까지 줄여 비닐과 종이박스 등 포장 쓰

레기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했다.

또한 양반김 에코패키지는 국내 조미김 포장 최초로 ‘레이저 컷팅 필름’을 도입했다. 이 필름은 고열의 레이저로 필름 겉면에 작은 구멍을 내 점선을 만들어 쉽게 찢어지도록 만든 포장재로, 양반김 에코패키지는 점선을 따라 양쪽을 잡고 손쉽게 뜯을 수 있어 조미김의 파손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뚜레쥬르

샌드위치 포장지, 친환경으로 개선

리무버블 유포지 · PE스티커 적용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사용 빈도가 높은 물티슈와 스티커 등 소모품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교체하며 친환경 소재 도입에 속도를 낸다고 3월 24일 밝혔다.

샐러드 및 샌드위치 포장 시 사용하는 스티커는 분리 배출 용이성을 높였다. 기존 스티커는 포장 용기에 사용 시 접착제와 종이 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아 포장 용기 전체의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롭게 적용하는 리무버블 유포지 · PE스티커는 접착제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스티커만 분리할 수 있다.

샌드위치를 담아 포장하는 지함은 수용성 코팅을 적용했다. 기존 래미네이트 코팅 지함은 투명 필름을 종이에 붙이는 형태라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야 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종이 지함은 수용성 코팅액을 사용해 종이류로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